

사회통합 역량으로 바라본 터키 사회의 질*

최슬기 |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2011년 기준 터키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0,524불로 한국의 22,424불에 비교하여 절반 정도의 크기이다. 그렇다면 터키의 사회의 질도 대략 한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글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비교사회학적 시각에서 터키 사회를 한국 사회와 비교 분석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 사회의 유지 발전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응집성을 신뢰, 공동체 참여, 통합된 규범 내지 가치, 정체성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로는 2012년도에 한국과 터키에서 동시에 실시된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터키의 사회응집성은 한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터키인들은 외집단과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인보다 높았다. 터키인들의 가족, 친구, 이웃과 접촉빈도도 더 높았고, 정치적 모임이나 시민단체 같은 공공의 성격을 갖는 모임에 참여빈도도 더 높았다. 특히 봉사나 자선활동에 참여도가 한국보다 훨씬 활발했다. 통합된 규범/가치 차원에서 터키인들은 복지증대와 이를 위한 증세, 보편복지에 대한 지향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 계층별 의견차이도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측면에서도 소속감, 국가 자긍심 두 영역 모두에서 터키가 한국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소득수준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사회적 측면에서 터키 사회의 질이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히즈멧운동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이슬람 전통사회가 갖고 있는 상호 부조 문화의 힘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주제어: 터키, 사회의 질, 사회응집성, 사회통합

*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RF-2011-330-B00120). 이 논문의 초고는 2012년 후기사회학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2년 발간한 이현주 외 저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 비교: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1(터키)』의 제5장 “터키의 복지 의식과 사회통합”의 일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논문에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두분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시작부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명순, 이재열, 장덕진, 조병희, 한신갑, 카디르 아이한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 서 론

2009년 말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 속에서도 터키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위기의 근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재정위기가 과도한 정부지출에서 기인했다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터키로서는 위기를 헤쳐 나왔다기보다는 위기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터키는 2003년 에르도안(R. T. Erdogan) 총리가 이끄는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6.9%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계속 기록하였다. 2009년 유럽 위기의 여파로 -4.8%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이듬해 바로 9.2% 성장을 이룩하면서 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이 곧 사회 발전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경제성장 이면에는 부의 재분배에 따른 양극화 등 상대적 빈곤의 악화가 따라올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제성장은 고용불안정과 실업의 확대라는 음의 영역도 수반되기 쉽다.

터키는 1990년 5,800달러에 불과했던 일인당 국민소득이 2011년에는 10,524달러로 증가하였다(World Bank, 2013). 하지만 2011년 현재,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0.41로 OECD 국가 중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실업률도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1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OECD, 2012).

그렇다면 터키 사회의 질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2011년도에 22,424달러였으니 한국의 절반 수준이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는 한 단면만을 바라보고 내린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한 사회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 사회의 유지 발전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응집성을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역량 중 하나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터키 사회의 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히즈멧운동(Hizmet Movement)의 사례에서 보듯이 터키 사회에서 민간 영역이 갖고 있는 교육, 보건, 복지 측면에서 사회응집성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슬람 사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와크푸(waqf, 터키어로는 vakif)라는 기부문화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과는 별도로 사회적 측면에서 터키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한 사회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방면의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해줄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이론적 분석틀을 이루는 사회응집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연구방법론에 대하여 서술한 뒤, 사회응집성을 이루는 영역별로 터키 사회를 분석해볼 것이다. 분석에 있어서는 비교사회학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대비하여 터키사회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사회응집성이 터키사회의 현재와 미래에서 갖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II. 분석의 이론적 틀

1. 사회통합 역량과 사회응집성

사회통합 역량은 빈곤과 실업, 범죄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해당 사회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초기엔 경제적 측면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에 Jenson(1998)이나 Bernard(1999) 등에 의해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응집성(social cohesion)이 기본 개념으로 연구되었다. 이후 사회통합역량 연구는 다양한 부문의 사회의 발전 정도를 동시에 평가하는 사회의 질 이론(Social Quality Theory)으로 발전하게 되었다(Maesens and Walker, 2005). 즉, 한 사회의 발전 정도는 민주주의, 혹은 일인당 GDP같은 정치나 경제의 한두 가지 지표를 활용한 단선적인 발전경로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사회학에서 발전시킨 다층적인 개념으로 사회를 평가하는 것이다(Yee and Chang, 2011; 정해식, 2012).

사회의 질 이론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Abbott, 2011).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afety), 사회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이 그것이다. 이러한 네 영역은 시스템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포용성이 해당되고, 생활세계 측면에서는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역능성이 해당된다. 또한 사회수준의 발전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응집성이 중요시되고, 개인수준의 발전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사회응집성은 사회통합역량의 핵심요소 중 하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한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응집성의 의미와 구성요소

사회응집성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한 사회의 능력을 의미한다(Berman, 2004). 이는 가치와 규범이 공유되는 상황 하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며, 파괴하는 거시수준의 과정과 이런 관계들을 지탱하는 하부구조와 관련된다(Beck et al. 1997). 공동체의 유지 형성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응집성은 한 사회의 장기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사회응집성 반대개념이 사회적 와해(social dissolution)라는 것에서 더 쉽게 이해된다. 사회응집성이 부족한 사회는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거나 내부의 모순이 심화될 경우엔 쉽게 와해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응집성이 충분히 발현되는 사회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통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사회응집성은 사회적 자본의 크기에 따라 그 양과 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응집성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태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Forrest, 2001). 구체적으로 사회응집성은 아래 네 가지 차원

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신뢰(Trust)이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야마(1995)는 사회자본을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비공식적 가치나 규범으로 집단 또는 조직의 공동목표를 위해 구성원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때 신뢰를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신뢰는 그 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볼 수 있다. 즉, 한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와, 개인에 대한 신뢰, 기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또한 개인 신뢰도 평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집단에 대한 신뢰(내집단 신뢰)와 낯선 타자에 대한 신뢰(외집단 신뢰)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쌓여 있어야 하며, 특히 외집단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차원을 넘어서서 시스템으로 작동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관에 대한 신뢰도 중요시 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이다. 공동체 활동 자체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그 대상과 참여 양상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즉 가족 간, 친구 간, 이웃 간의 접촉양상과 단체를 통한 관계 참여 양상이 고려된다.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회가 되려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참여 및 기부행위도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세 번째는 통합적 규범 내지 가치관(integrated norms and values)이다. 여러 사회적 규범 내지 입장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용인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지만, 느슨한 형태의 통합적 규범 내지 가치관은 한 사회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특히 한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느냐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자산이 된다. 한국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복지를 둘러싸고 세대 간 혹은 계급 간 갈등이 첨예한 논점이 되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은 그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이다.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구성원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같은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지는 사회구성원이 스스로를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는 어느 범위까지를 자신이 속한 사회로 인식하는지로 바꿔 평가할 수도 있다. 정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속감뿐 아니라 자긍심도 살펴보아야 한다. 소속감을 넘어서 자긍심도 가져야 그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지려면 구성원들이 해당 사회 범위에 맞는 소속감뿐 아니라 자긍심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III. 분석 자료 및 방법론

이 논문은 비교사회학적 시각으로 터키 사회의 응집성을 한국 사회와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시수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한다. 조사자료로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전시켜온 “사회의 질에 관한 표준화된 설문(Standardized Questionnaire of Social Quality, SQSQ 2009)”을 수정 보완하여 2012년도 터키와 한국에서 실시된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SQSQ 2012)”를 활용하였다. SQSQ 2009는 한국, 대만, 중국, 홍콩, 일본, 태국, 호주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2009년도에 실시된 설문조사이다. SQSQ 2012는 이러한 SQSQ 2009의 장점을 승계하면서도 질문의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분석가치가 낮은 질문을 삭제 내지 보완하고, 다중격차의 측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터키에서 실시된 SQSQ 2012는 터키에 살고 있는 성인 터키사람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의 18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1,018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1,000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조사방식은 면대면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면접하여 설문지의 응답을 얻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본추출방법으로는 지역층화 표본추출방식을 채택하였다. 질문지 개발과 영문 번역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담당하였다. 터키 현지

어 번역, 실사와 자료처리는 한국갤럽과 터키 현지의 파트너 사가 담당하였다. 조사는 2012년 5월 한 달간 실시되었다.

질문내용은 사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정치와 정부에 대한 의견, 삶의 만족도 등 일상생활에 대한 의견, 성장과 복지, 인권 등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가족을 단위로 가계나 주거 등 경제상황,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의 일과 소득 상황과 배경질문들로 조사대상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융집성 개념을 신뢰, 공동체 참여, 통합적 규범 및 가치, 정체성 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변수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뢰는 일반신뢰, 개인 내집단신뢰, 개인 외집단신뢰, 집단신뢰로 변수화하였다. 일반신뢰는 대부분 사람에 대하여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뢰도 일반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내집단은 가족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외집단은 타인과 외국인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기관신뢰에서는 국가 및 정치기관 7개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과 같은 민간단체 3개에 대하여 신뢰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응답척도로는 일반신뢰만 2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그 외에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동체 참여는 접촉빈도, 단체참여 및 활동, 봉사/자선 활동으로 나누어 변수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접촉빈도에서는 동거하고 있지 않은 가족/친구/이웃을 대상으로 전화, 우편, 이메일을 포함한 만남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접촉방식에 따라 공동체 참여의 경증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대신 응답자 주관에 따라 접촉빈도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단체참여 및 활동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여섯 가지 유형의 모임에 대하여 각각 참여 활동하였는지 그 경험의 유무만을 측정하였다. 봉사/자선 활동에서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지,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경험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통합적 규범/가치의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복지와 관련된 세 가지 쟁점을 질문하고 그 의견이 세대별로, 혹은 계층별로 어떻게 다르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계층 구분에서는 주관적인 계층인식과 소득분위에 따른 객관적인 구분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복지와 성장 중에

〈표 1〉 분석에 사용된 개념, 차원, 변수, 질문

개념	차원	세부영역 (변수)	질문	
사 회 응 집 성	신뢰	일반신뢰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점 척도)	
		개인 신뢰	내집단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 지 않으십니까? (4점 척도) △ 가족 /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외집단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 지 않으십니까? (4점 척도) △ 낯선 사람 / 외국인
	기관신뢰	귀하는 다음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 십니까? (4점 척도) △ 중앙정부 / 국회 / 사법부 / 지방자치정부 / 군대 / 정당 / 노동조 합 / 시민단체 / 언론		
	공동체 참여	접촉빈도	귀하와 함께 살지 않는 다음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거나 또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 가족 / 친구 / 이웃 (응답: 거의 매일 / 일주일에 한두 번 / 한 달에 한두 번 / 일년에 6~7번 / 일년에 한두 번 / 전혀 접촉 안 함)	
		단체참여 및 활동	지난 1년 동안 귀하가 아래 단체/모임과 관련된 활동을 하신 적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각각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 레저, 문화 모임 / 종교모임 / 정치적 모임 / 시민단체 / 동문회 / 향우회 (응답: 있다 / 없다)	
		봉사/자선 활동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 자원봉사 /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응답: 일주일에 한번 이상 / 한 달에 한두 번 / 일년에 6~7번 / 일 년에 한두 번 혹은 그 이하 / 전혀 안 했다)	
	통합적 규범 /가치	통합적 규범 /가치	다음 각각의 두 가지 의견 중에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인지 말씀해주시시오. △ 복지 vs. 성장 ① 경제성장을 위해 복지를 줄여야 한다 ②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 △ 복지 vs. 세금 ① 복지혜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세금을 더 적게 걷어야 한다 ②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라도 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 △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①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②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모두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	
	정체성	자긍심	귀하는 터키(한국) 민인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4점 척도)	
		소속감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멀다고 느끼십니까? (4점 척도) △ 같은 시도 거주자 / 자국민 / 아시아인 / 유럽인	

서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지 이며, 두 번째 쟁점은 복지를 위해 증세를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 이며,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이었다. 각각에 대하여 상반된 두 주장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보다 가깝다고 느끼는 의견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은 자긍심과 소속감 두 가지 영역에서 변수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긍심은 터키인(한국인)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로 측정되었다. 소속감은 해당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통해 측정되었다. 지역은 같은 시도/국민/아시아로 각각 질문되었다. 터키의 경우 유럽인에 대하여 느끼는 거리감이 추가되었다. 자긍심과 소속감 모두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분석은 무응답 등 결측치를 제외한 각각의 응답에 대한 빈도 구성비를 비교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카이제곱 검정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신뢰

터키와 한국의 일반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터키에서는 응답자의 24.1%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한국에서는 믿을 수 있다 비중이 약간 줄어 22%가 믿을 수 있다고 78%가 조심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조심해야 한다는 비중은 3/4를 넘어선다. 일반신뢰도는 비슷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국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표 2> 일반신뢰

	믿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계	χ^2
터키	24.09	75.91	100.0	
한국	21.95	78.05	100.0	1.28

*p < .05; **p < .01; ***p < .001

하지도 않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신뢰(〈표 3〉)에서는 두 국가간 차이가 나타난다. 터키에서는 가족에 대하여는 ‘매우 신뢰한다’가 62.4%, ‘약간 신뢰한다’가 30.3%로 대답하여, 두 응답을 합치면 ‘신뢰한다’는 쪽이 92.7%에 달했다. 한국에서는 85.7%가 ‘매우 신뢰’한다고 13.3%가 ‘약간 신뢰’한다고 답하여, 신뢰하는 쪽이 99%에 달했다. 두 국가 모두 가족에 대하여는 절대 다수가 신뢰하는 편이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매우 신뢰한다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하여는 터키는 17.6%가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가 54.2%를 차지하였다. 두 집단을 더한 신뢰한다는 편은 71.8%로 아는 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은 터키보다도 신뢰도가 더 높아 ‘매우 신뢰한다’가 18%, ‘약간 신뢰한다’가 68%로, 두 집단을 더하면 86%에 달했다.

외집단에 대하여는 터키와 한국 모두에서 불신의 비중이 더 높았다. 터키는 낯선 사람에 대하여 2.6%만이 매우 신뢰한다, 14.9%만이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은 이보다 낮아 0.2%만이 ‘매우 신뢰한다,’ 8.1%만이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터키에서는 1.8%만이 ‘매우 신뢰한다,’ 13.5%가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에서는 0.3%만이 ‘매우 신뢰한다,’ 9.7%가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내집단과 외집단 구분에 따라 신뢰도가 높은 국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가족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같은 내집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신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낯선 사람과 외국인 같은 외집단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터키에서 신뢰도가 더 높았다. 하지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중은 터키에서 더 높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함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국가 모두 내집단은 신뢰도가 매우 높지만 외집단은 신뢰도가 낮다는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고, 특히 자신의 가족, 내가 아는 이를 넘어선 사회공동체 구성원 일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보았을 때 두 국가 모두 개인신뢰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그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3〉 개인신뢰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계	χ^2
가족	터키	62.39	30.31	5.53	1.78	100.0	141.24***
	한국	85.69	13.31	0.80	0.20	100.0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터키	17.55	54.24	22.09	6.11	100.0	74.79***
	한국	17.99	68.04	12.86	1.11	100.0	
낯선 사람	터키	2.57	14.92	39.33	43.18	100.0	67.58***
	한국	0.24	8.14	54.38	37.28	100.0	
외국인	터키	1.81	13.47	37.19	47.54	100.0	34.34***
	한국	0.34	9.66	48.88	41.12	100.0	

*p < .05; **p < .01; ***p < .001

기관신뢰는 9개의 서로 다른 기관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이들은 6개의 국가/정치 기관과 3개의 민간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정부/정치 기관을 보면,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한국과 터키 모두 신뢰보다는 불신의 경우가 더 많았지만, 한국보다 터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뢰도가 더 높은 편이었다. 터키는 ‘신뢰하는 편이다’가 46%에 달했지만 한국은 27%에 불과했다. 국회는 터키에서는 중앙정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중앙정부보다 불신의 경우가 더 많은 편이었다. 터키에서 ‘신뢰하는 편이다’가 43%에 달했지만 한국은 13%에 불과했다.

터키는 1960년, 1971년, 1980년, 1997년 군사쿠데타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2002년 선거에서 정의개발당이 압승하면서 군부의 힘이 크게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에르도안 총리가 이끄는 정의개발당은 보수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이슬람 전통과 서구적 가치의 조화를 통한 개혁을 추구하였다(김대성, 2008). 경제적으로도 정의개발당 집권기간 동안 고질적이었던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선거에서도 정의개발당은 지중해 연안과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동쪽끝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얻어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은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지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표 4〉 기관신뢰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계	χ^2
중앙정부	터키	10.94	35.04	33.03	20.98	100.0	117.27***
	한국	1.74	25.56	50.72	21.98	100.0	
국회	터키	10.18	32.63	33.73	19.46	100.0	276.66***
	한국	0.71	12.73	51.22	35.34	100.0	
사법부	터키	8.64	36.28	35.58	19.50	100.0	114.94***
	한국	1.43	22.62	50.36	25.59	100.0	
지방자치정부	터키	7.36	35.69	37.97	18.99	100.0	83.39***
	한국	1.54	24.33	52.57	21.56	100.0	
군대	터키	17.31	37.41	28.16	17.11	100.0	40.07***
	한국	10.57	42.48	35.67	11.28	100.0	
정당	터키	4.47	22.26	41.87	31.40	100.0	64.98***
	한국	0.71	12.55	47.86	38.88	100.0	
노동조합	터키	4.02	28.12	43.02	24.84	100.0	20.22***
	한국	2.08	24.40	52.44	21.08	100.0	
시민단체	터키	4.82	43.05	42.02	21.11	100.0	7.26
	한국	4.54	36.49	42.06	16.91	100.0	
언론	터키	3.15	22.79	45.57	28.48	100.0	16.67**
	한국	1.75	26.39	49.90	21.97	100.0	

*p < .05; **p < .01; ***p < .001

터키에서 사법부와 지방자치정부는 중앙정부나 국회에 비해 신뢰도가 약간 더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군대는 한국 터키에서 모두 불신보다는 신뢰받는 경우가 더 많은 유일한 기관이었다. 여전히 터키에서 군사쿠데타 음모가 발각되고 이와 관련된 군인들이 감옥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는 터키에서 국가/정치 기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특히 정당과 노동조합은 터키에서 불신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보다는 신뢰수준이 높았다. 시민단체는 절반 가까운 터키인이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나(47.9%) 한국에서는 41%에 불과했다. 사설기관

이나 공적인 역할이 중요한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두 국가 모두에서 모두 낮은 편이었다. 터키에서 ‘신뢰하는 편이다’는 26%이었고 한국에서는 28%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언론을 ‘매우 신뢰한다’로 한정하면 1.75%에 불과했다.

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뢰보다는 불신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다는 터키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로 더 높은 편이었다. 그 차이는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2. 공동체 참여

동거하지 않은 가족/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는 한국보다는 터키에서 더 잦았다. 가족의 경우 터키는 ‘거의 매일 접촉한다’가 64%에 달한 반면 한국은 27%에 불과했다. 친구의 경우도 터키는 ‘거의 매일 접촉한다’가 44%이었고 한국은 22%이었다. 이웃 또한 터키는 ‘거의 매일 접촉한다’가 33%이었고 한국은 19%이었다. 이는 한국에 비하여 터키에서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더 크다는 이유 탓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대도시에 비하여 중소도시나 읍면동에 거주할수록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접촉빈도가 더 높아졌다(표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하지만 터키의 경우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아도 터키 사회가 한국보다 훨씬 더 접촉빈도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지난 1년간 활동한 단체나 모임을 그 유형에 따라 분석해보면 <표 6>과 같다. 흥미롭게도 한국에서 활동참가 비율이 더 높았다. 스포츠 레저 문화모임에 활동한 경험이 터키는 14%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30.4%에 달했다. 터키에서 이슬람 종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긴 하지만 종교모임에 활동한 것은 7.7%에 불과하였는데, 한국에서는 34%가 종교모임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동문회는 터키는 4%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32%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한국의 평균교육연수는 11.6년이지만 터키는 6.5년에 불과하였다. 터키의 낮은 동문회 참가율은

〈표 5〉 사회적 연결망: 접촉빈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두 번	전혀 접촉 안 함	χ^2
가족	터키	63.99	22.17	8.12	1.60	3.71	0.40	290.30***
	한국	26.80	41.10	19.30	6.40	5.00	1.40	
친구	터키	43.61	39.82	11.98	2.30	1.90	0.40	159.39***
	한국	21.51	41.31	26.93	4.22	3.32	2.71	
이웃	터키	32.86	38.64	17.75	3.45	2.54	4.77	110.25***
	한국	19.28	32.58	21.75	6.39	7.42	12.58	

*p < .05; **p < .01; ***p < .001

낮은 교육연수로 설명가능하다. 하지만 높은 교육연수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동문회 모임이 매우 활발한 단체 모임활동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우회의 경우에도 터키는 활동경험이 5%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13.3%에 달했다.

개인적인 오락,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가 한국에서 활동 비율이 더 높았다면, 정당 등 정치적 모임이나 시민단체 활동 경험은 터키에서 더 높았다. 정당 활동경험은 터키에서 7.3%이었지만 한국에서는 3.4%이었고, 시민단체 활동 경험은 터키에서 5.9%이었지만 한국에서는 3.4%이었다.

공동체 일반과 관련된 단체 모임 활동 비중이 터키에서 더 높은 현상은 사회봉사나 기부 활동 경험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7〉은 지난 1년간 사회봉사나 기부 활동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터키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있었던 사람은 21%인 반면 한국에서는 9.5%에 불과했다. 한두 달에 한두 번을 일정 정도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면 터키에서 정기적으로 자원 봉사하는 사람 비중이 한국보다 두 배 더 많다

〈표 6〉 지난 1년간 단체/모임과 관련된 활동 경험 비율

	스포츠, 레저, 문화 모임	종교 모임	정당 등 정치적 모임/단체	시민단체	동문회	향우회
터키	14.0	7.7	7.3	5.9	3.9	5.0
한국	30.4	34.0	3.4	3.4	32.1	13.3

〈표 7〉 지난 1년간 사회봉사/기부와 관련된 활동 경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두 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두 번 혹은 그 이하	전혀 안 했다	χ^2
자원봉사	터키	6.19	14.93	9.92	10.71	58.25	84.48***
	한국	2.30	7.20	4.50	13.30	72.70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터키	6.68	14.93	13.36	16.31	48.72	139.17***
	한국	2.00	7.60	3.50	21.00	65.90	

*p < .05; **p < .01; ***p < .001

고 할 수 있다.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행위를 보아도 터키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이 21.6%에 달한 반면 한국은 9.6%에 불과하였다. 일년에 한번 이상 경험한 사람이 터키는 절반이 넘는 51%이었지만 한국은 34%에 불과하였다.

퓨리서치(201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터키에서 이슬람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97%에 달한다. 그러나 모스크에 매주 다닌다는 사람은 19%에 불과하였다. 가끔씩 다닌다는 사람을 포함해도 44%에 불과하였다. 이를 보고 종교성이 약하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그보다 종교생활의 양상이 한국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것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매일 코란을 읽는다는 사람은 72%에 달한다. 자카트(zakat)를 지킨다는 사람도 72%에 달하였다. 자카트는 이슬람 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의무 중 하나로 재산의 일부를 매해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연소득의 5~20% 가량이며 평균 10% 정도이다(Ebaugh, 2010). 이러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이슬람 사회에서는 워크푸라 불리우는 민간재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워크푸는 빈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까지도 시행하고 있다(이현주 외, 2012).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히즈멧 운동을 들 수 있다.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굴렌운동이라고도 불리우는 히즈멧 운동은 1960년대에 터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일종의 사회운동 재단이다. 이들은 터키와 중앙아시아에 1,000개 이상의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터키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인 Kimse Yok Mu와 관련을 맺고 있고, 영세상인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Esposito, 2010; Yilmaz 2010).

터키인은 종교 모임에서 활동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보다 드물었지만,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하여 헌신하는 활동은 한국에서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SQSQ2012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통합적 규범/가치

통합된 규범/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복지와 관련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세대와 계층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복지와 성장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한국은 경제성장과 복지에 대한 의견이 비슷한 비중으로 팽팽히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반면에, 터키는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71%에 달하였고 경제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하였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터키에서는 60대에서 복지를 우선하는 의견이 높았을 뿐 다른 연령대 간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연령대인

〈표 8〉 복지와 성장에 대한 의견

		터키			한국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복지를 우선해야	χ^2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복지를 우선해야	χ^2
전체		29.08	70.92		48.50	51.50	
연령별	18~20대	28.62	71.38	1.31	41.88	58.12	12.22*
	30대	29.76	70.24		43.13	56.87	
	40대	29.50	70.50		54.42	45.58	
	50대	30.32	69.68		54.92	45.08	
	60대 이상	22.64	77.36		47.49	52.51	
주관적 계층	하위	31.05	68.95	1.59	45.21	54.79	6.21
	중위	28.43	71.57		49.60	50.40	
	상위	28.46	71.54		53.24	46.76	
소득별	1분위	24.77	75.23	6.03	42.19	57.81	8.04
	2분위	33.14	66.86		49.50	50.50	
	3분위	27.18	72.82		48.32	51.68	
	4분위	31.17	68.83		55.75	44.25	
	5분위	32.63	67.37		50.28	49.72	

*p < .05; **p < .01; ***p < .001

40대와 50대에서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의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이다. 터키에서는 상층의 70% 이상이 전체 국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지를 우선시하였으며, 계층별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층은 55%가 복지를 우선시한 반면 상층은 53%가 경제성장을 우선시하였다. 한국에서는 계층수준에 따라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반면 터키에서는 계층과 관련 없이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계층의 효과는 주관적인 계층의식에 의한 구분에서뿐 아니라 소득수준별 집단 간에도 재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9〉는 복지를 위해 증세를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있다. 터키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63%인 반면 한국은 복지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더 적게 걷어야 한다는 53%로 더 많았다. 터키에서는 연령이나 주관적 계층, 소득수준별 어느 기준으로든 세

〈표 9〉 복지와 세금에 대한 의견

		터키			한국		
		세금을 적게 걷어야	복지를 늘려야	χ^2	세금을 적게 걷어야	복지를 늘려야	χ^2
전체		37.43	62.57		53.20	46.80	
연령별	18~20대	36.00	64.00	13.50**	48.17	51.83	4.47
	30대	43.65	56.35		50.24	49.76	
	40대	42.00	58.00		56.64	43.36	
	50대	28.72	71.28		55.44	44.56	
	60대 이상	30.19	69.81		55.31	44.69	
주관적 계층	하위	41.13	58.87	8.11	54.25	45.75	3.89
	중위	33.14	66.86		53.02	46.98	
	상위	42.31	57.69		51.08	48.92	
소득별	1분위	35.05	64.95	3.56	54.69	45.31	2.67
	2분위	39.43	60.57		54.50	45.50	
	3분위	30.10	69.90		49.66	50.34	
	4분위	39.61	60.39		56.32	43.68	
	5분위	37.89	62.11		49.72	50.28	

*p < .05; **p < .01; ***p < .001

금을 부담해서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보편적으로 더 많았다. 특히 연령대에서는 50대, 계층으로는 중간층이 증세에 대한 지지의사가 높았다.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담감을 실감하게 될 집단에서 세금을 늘려서라도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젊을수록, 주관적 하위 계층으로 인식한 집단일수록 증세와 복지 확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아졌다.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의 6~38%로 (2012년 이전은 최고세율이 35%) 매겨지는 누진세 제도를 갖고 있다. 터키 또한 비슷한 누진세 방식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15~35%의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두 사회 모두 복지제도를 늘려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터키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슬람 종교에 기반한 나눔문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워크푸카 지역마다 활성화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부를 나누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국가시스템에 의한 부조에 대한 고른 지지는 터키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은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사이에 선호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과 터키 양국 모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미세하게나마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터키에서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에서 선별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중간계층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더 많다는 점이다. 주관적 계층도를 나누어 보았을 때 하층의 58%, 상층의 50%가 선별적 복지를 지지한 반면, 중간층은 52.5%가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였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터키에서는 연령별 의견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젊은 층에서 보편적 복지의 지지가 조금 더 높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선별적 복지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 60대 이상에서는 62%가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의견

		터키			한국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χ^2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χ^2
전체		50.59	49.41		52.20	47.80	
연령별	18~20대	52.62	47.38	7.41	43.98	56.02	19.90***
	30대	48.81	51.19		46.92	53.08	
	40대	55.00	45.00		49.56	50.44	
	50대	43.09	56.91		60.10	39.90	
	60대 이상	56.60	43.40		62.01	37.99	
주관적 계층	하위	57.66	42.34	10.57*	58.63	41.37	12.81**
	중위	47.45	52.55		46.77	53.23	
	상위	50.00	50.00		54.68	45.32	
소득별	1분위	51.66	48.34	18.48***	63.67	36.33	19.95***
	2분위	47.43	52.57		47.50	52.50	
	3분위	33.01	66.99		51.01	48.99	
	4분위	52.60	47.40		52.87	47.13	
	5분위	58.42	41.58		44.20	55.80	

*p < .05; **p < .01; ***p < .001

4. 정체성

〈표 11〉은 응답자가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통해 측정된 소속감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시도 거주자에 대하여 터키에서는 37.6%가 ‘매우 가깝다’, ‘가깝다’가 50%로 응답자의 88%가 가깝게 느끼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가깝다’는 11%, ‘가깝다’는 70%로 81% 만이 가깝게 느끼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같은 국민에 대하여도 터키에서는 26.4%가 ‘매우 가깝다’고, 59%가 ‘가깝다’라고 답변하여 86%가 가까운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가깝다’가 10%였고 ‘가깝다’는 68%였다. 같은 시도 거주자나 같은 국민에 대한 거리감 모두에서 터키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터키의 경우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아시아인과 유럽인에 대하여 느끼는 거리감도 측정하여 보았다. 아시아인 유럽인 모두에 대하여 매우 가깝다는 각각 4%에 불과하였다. 가깝다라고 응답한 이도 각각 21%, 24%에 불과하여 아시아 유럽 어느 쪽에도 소속감을 느끼다

〈표 11〉 소속감

		매우 가깝다	가깝다	멀다	매우 멀다	계	χ^2
같은 시도 거주자	터키	37.64	49.75	10.81	1.80	100.0	188.31***
	한국	10.99	69.66	17.65	1.69	100.0	
같은 국민	터키	26.40	59.30	11.40	2.90	100.0	101.53***
	한국	10.16	67.75	20.21	1.88	100.0	
아시아	터키	3.68	21.43	49.26	25.63	100.0	42.31***
	한국	0.97	25.59	56.99	16.45	100.0	
유럽	터키	3.96	24.29	50.10	21.65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국가 자긍심

	매우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편이다	자랑스럽지 않은 편이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계	χ^2
터키	49.04	33.84	14.10	3.02	100.0	151.88***
한국	25.59	60.02	13.16	1.23	100.0	

* $p < .05$; ** $p < .01$; *** $p < .001$

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국에서도 아시아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자국민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터키인들은 절반 가까운 49%가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응답하였다. ‘자랑스러운 편이다’까지 더 하면 83%가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5.6%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랑스러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이는 60%였다. 국가자긍심은 터키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터키의 사회의 질이 한국보다 낮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절반가량에 불과했지만, 사회응집성 측면에서 보자면 터키는 한국보다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뢰 차원에서 볼 때, 개인신뢰에 있어서는 한국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집단인 내집단에 대해서 터키보다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고, 터키는 낯선 이질인 외집단의 경우에 한국보다 신뢰도가 더 높았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직접 아는 이들을 넘어서서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타지들에 대하여 동류의식을 느끼고 선의를 베풀며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외집단 신뢰와 기관신뢰 두 영역에서 신뢰도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난 터키에서 사회응집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 참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동거하지 않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터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레저, 문화 모임이나 종교모임, 동문회 향우회 같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나 오락을 위한 관계는 한국에서 더 활발하였으나, 정치적 모임이나 시민단체처럼 공공의 성격을 띠는 모임에는 터키의 경우가 더 참여경험이 높았다. 봉사나 자선활동의 경우도 한국보다는 터키의 경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루어지고 있었다.

통합된 규범/가치 차원에서도 터키에서 사회응집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경제성장과 복지증대라는 의견이 대립되었던 반면 터키는 복지증대에 대한 지지가 71%로 다수를 이루었다. 특히 계층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수혜층인 하층에서 더 많은 복지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반면, 세금부담이 더 큰 상층일수록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터키에서는 상층에서도 복지증대에 대한 요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슬람 전통의 나눔문화가 상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증세와 복지에 대해서도 터키에서는 중간층이 증세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 터키에서는 사회적 의견에 대한 통합성, 복지에 대한 지지, 특히 중간층과 상층의 복지에 대한 지지가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측면에서도 소속감, 국가 자긍심 두 영역 모두에서 터키가 한국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터키에서는 절반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가 터키인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느낄 정도로 국가 자긍심이 확고하였다.

터키에서 사회응집성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 소득수준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사회적 측면에서 터키 사회의 통합역량이 매우 발달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보다 가난하지만 물질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신뢰가 높으며, 공통의 규범/가치관을 형성하여,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는 터키인의 모습은 터키 사회의 질을 단순히 일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표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터키의 사회응집성에도 불안한 측면은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은 빈부격차를 비롯 사회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슬람 전통에 기반한 터키사회의 응집력이 이를 수용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양상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시된다. 무엇보다 불안정성의 폭이 커져가고 있다. 경제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실업률은 높고, 소득불평등도 심하다. 이에 반하여 약자에 대한 도움은 비공식부문에서 개인차원의 자선에 기반하여 해결되고 있다. 자영업비중이 39%(OECD, 2012)이고 지하경제도 29%(Kholodilin and Thiechen, 2011)로 OECD 최고수준이다. 복지제도도, 이를 위한 자원마련도 이제 시작 단계이다. 히즈멧 운동은 전통적 부조문화가 제도화된 성공적 예라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수많은 워크푸들이 현대적 모습으로 변모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동시에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리더십도 아직은 미완성 단계이다. 2003년부터 에르도안 총리가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집권하면서 과거 엘리트 중심의 세속주의 군부 중심에서 벗어나 이슬람가치를 보존하면서 서구식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쿠데타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에르도안이 이끄는 변화도 다원화된 민주

주의로 나아갈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터키사회는 높은 사회응집력이라는 양질의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응집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향후 터키 사회의 질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비서구사회에서 발전 경로를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터키의 예에서처럼 전통 사회에서 갖고 있는 장점도 한 사회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식민지 경험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의 단절을 경험한 한국에서도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긍정적 유산을 발굴해내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일일 것이다.

투고일자: 2013-04-17 심사일자: 2013-05-14 게재확정: 2013-06-01

참고문헌

- 김대성. 2008. 「터키 정의발전당의 창당과 집권에 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0권(4). pp. 1-29.
- 이현주·강신욱·최슬기·Kadir Ayhan·박형준. 2012.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터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bott Pamela and Claire Wallace. 2011. "Social Quality: A Way to Measure the Quality of Society." *Social Indicator Research*, 108(1): 153-167.
- Beck, W., van der Maesen, L.J.G., and Walker, A. 1997.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Bristol: The Policy Press.
- Berman, Y. and Philips, D. 2004. "Indicators for Social Cohesion."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European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msterdam. June. 2004.
- Bernard, Paul. 1999. *Social Cohesion: A Dialectical Critique of a Quasi-Concept?* Ottawa: Strategic Research and Analysis Directorat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 Council of Europe. 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Ebaugh, Helen Rose. 2010. *The Gulen Movement: A Sociological Analysis of a Civic Movement Rooted in Moderate Islam*. New York: Springer
- Esposito, J.L. and Ihsan Yilmaz. 2010. "Transnational Muslim Faith-based Peace building: Initiatives of the Gulen Movement." *Europe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tudies*: 87-102
- Forrest, Ray and Ade Kearns. 2001.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the Neighbourhood." *Urban Studies*, 38(12): 2125-2143.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Jenson, Jane. 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Ottawa: Strategic Research and Analysis Directorat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and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CPRN Study No. F/03.
- Kholodilin, Konstantin and Ulrich Thiehn. 2011. "The Shadow Economy in OECD Countries: Panel-Data Evidence" *Discussion Papers of DIW Berlin*.
- Pew Research Center. 2012. The World's Muslims: Unity and Diversity. <http://www.pewforum.org/Muslim/the-worlds-muslims-unity-and-diversity-2-religious-commitment.aspx> (accessed on 16 October 2012).
- Ritzen, Jo. 2000. Social Cohesion, Public Policy,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for OECD Countries. Keynote address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the Contribution of Human and Social Capital to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Well Being. March 20. Quebec City.
- van der Maesen, L.J.G., and Walker, A.C.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5: 8-24.
- Yilmaz, Ihsan. 2010. "Civil Society and Islamic NGOs in Secular Turkey and Their Nationwide and Global Initiatives: The Case of the Gulen Movement."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115-130.
- OECD Outlook 2012. <http://www.oecd.org/statistics/> (accessed on 26 June 2012)
- World Bank. Data 2013.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accessed on 15 April 2013)
- Yee, Jaeyeol and Chang, Dukjin. 2011. "Social Quality as a Measure for Social Progress." *Development and Society*, 40(2): 153-172.

Social Quality of Turkey

Seulki Choi

Assistant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World Bank, the GDP per capita in Turkey in 2011 is \$10,524 whereas it is \$22,424 in South Korea. Does this mean that the social quality of Turkey is roughly half of South Korea's? This paper tries to show that we may need to look into not only economic facts but also social facts in order to evaluate the social quality. Using a comparative sociological perspective, four domains related with social cohesion were analyzed. Specifically, they are trust, network, integrated norms/values, and identity. The main data is Life and Society Survey, conducted in Turkey and South Korea in 2012. The results show that Turks have higher social cohesion compared to South Korean. Turks are more likely to trust outgroups and institutions. They have more contacts with families, neighbors, and friends. They are especially active in charity work and community volunteering. Their opinions on welfare were relatively in the same direction to welfare extension regardless of generation and class. They are very proud of their country. These results originate from Islamic traditional culture. A good example is the Hizmet movement. It shows that social integration in Turkey society is stronger than it is in South Korea.

Keywords: Turkey, Social Quality, Social Cohesion, Social Integration

